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서함(噬嗑)

‘대상(大象)’ 우레와 번개가 서함이다[雷電噬嗑][뇌전서함].

‘정전(程傳)’에 “‘상전’에는 거꾸로 말한 경우가 없다. 아마도 이 말(雷電과 電雷)은 서로 통용되기 때문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단전(象傳)’에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라고 되어 있고, 이는 두 글자가 서로 비속하여 ‘상전’이 ‘단전’을 따라서 잘못 뒤바뀌어 놓은 것이다. 대개 ‘단전’에서 두 개의 상(象)을 말할 때는 내괘에서 외괘로 진행하고, ‘상전’에서는 상괘에서 하괘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준괘 ‘단전’에 “우레와 비가 움직여 가득 찬다”라 하고 ‘상전’에 “구름과 우레가 준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항(恒)괘의 ‘단전’에 “우레와 바람이 함께 한다”고 하여 우레와 바람이라고 한 것은 ‘상전’의 글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괘덕(卦德)을 “공손하게 움직인다”라고 말하면서 안에서 밖으로 진행한 것은 여러 괘의 ‘단전’의 용례와 동일하다.

‘단전’의 범례에서 괘덕(卦德)과 괘상(卦象)을 말할 때는 모두 내괘를 먼저 하고 외괘를 뒤에 하였다. 그렇다면 항괘의 ‘단전’ “우레와 바람”도 ‘바람과 우레’가 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서함괘의 ‘상전’은 ‘단전’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항괘의 ‘단전’은 ‘상전’ 때문에 착오를 범한 것이다.

비(賁)(꾸밈 비)

비(賁)는 형통하고 가는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로우리라[亨, 小利有攸往].

내가 생각건대, 음은 소(小)이고, 이 괘는 육이를 위주로 말하였으므로 ‘가는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로우리라’고 하였다. 육이는 이(離)의 가운데 자리하여 문명(文明)의 주체로 간(艮)의 밑에 있다. 불의 성질은 타올라 그 빛이신 위까지 미치

므로 형통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 산 아래 있어 불꽃이 산으로 올라오면 맹렬하게 태우는 환난이 있게 되므로 조금 이익이 될 뿐 나아가는 것이 크게 이로우 수 없다. 그러나 그 위에 간(艮)이 있어 다시 멈출 수 있는 상(象)이 되므로, 밑에 있는 불이 초목까지던 비추고 그 광채를 더하여 수식할[賁] 뿐이다.

「단전(象傳)」유(柔)가 와서 강(剛)을 문식하므로 형통하다. 강을 나누어 위로 올라 유를 문식하므로 가는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로우니 천문(天文)이고, 문명으로 그치니 인문(人文)이다[柔來而文剛, 故亨. 分剛而上而文柔, 故小有攸往,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내가 생각건대, ‘유가 와서 강을 문식하고’, ‘강을 나누어 올라가 유를 문식한다’는 것은 아래 괘는 본래 태(兌)괘였는데 유인 육삼이 외부에서 중앙으로 와 강인 초구를 문식하고, 강인 구이가 안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 유인육이를 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는 본래 초구와 구이 두 강이 중첩해 있다. 이제 구이를 나누어 세 번째로 올리려면 강 하나와 유 하나가 교대로 무늬를 이루므로 ‘강을 나누어 위로 올라가 유를 문식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비록 강과 유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육이를 위주로 말했으므로 ‘가는 곳이 있으면 조금 이롭다’고 하였다. 유에 대해서는 ‘유가 온다’고 하고 강에 대해서는 ‘강을 나눈다’고 하여 말 가운데 자연스럽게 손님과 주인이 되었다. 뜻이 매우 분명하여.

‘천문’이라는 것은 태가 변화하 리가 되어 강유가 뒤섞이고 다시 아래위가 모두 양이며 가운데 한 음을 머금어 하늘이 땅을 밖에서 안고 있는 상이고 이가 밝으므로 천문이라 한 것이다. 상괘(上卦)가 본래 감괘였는데 상육이 오(五)로 오고 구이 위로 가 역시 유가 오므로 강이 올라가서 유가 가운데 거처여 주인이 되었다. 전체 괘의 측면에서 보면 또 아래 위가 모두 양이고 가운데 하나의 양과 세 음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양[-

원이 덮개가 있는 그릇을 관통한 형상이다. ‘장전(象傳)’에 따르면 또 해가 산 아래서 떠오르는 상이 있으니 이것도 천문이다. 그러나 ‘단전’의 글은 대부분 내괘를 위주로 말한다. 외괘에는 다만 하나의 양뿐이어서 강을 나눈다고 말할 순 없다. ‘문명으로 그치니 인문이다’라고 한 것은 내괘와 외괘를 아우른 것이기도 하지만 외괘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상전(象傳)」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賁)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못정사를 밝히고 옥사를 함부로 판결하지 않는다[山下有火貞, 君子以明庶政, 无敢折獄].

‘산 아래 불이 있어’ 불빛이 위까지 미치고 광채가 현란하다. 그러나 밑에서 타오르다 맹렬하게 불태워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초목을 태우는데 그치고 그 세력이 맹렬하게 타오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군자는 아래서 위로 비쳐오는 상을 보고 못 정사를 분명히 하여 군주의 덕을 드러낸다. 맹렬하게 불타 산을 태우는 상을 경계하여 옥사를 함부로 판결함으로써 군주의 어둠을 헤치지 않도록 한다. 군자가 상을 관찰할 때는 본받아야 할 것이 있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상에는 두 가지 뜻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육오(六五) 언덕과 동산에서 꾸미는 것이 나 묊은 비단이 잔잔[잔잔]하니, 인색하지만 끝내는 길하리라[貞于丘園, 束裳雲梁, 終吉].

내가 생각건대, 구설에서는 상구(上九)를 언덕과 동산에 은둔한 현자로 보고 육오(六五)의 군주가 비단을 묊은 폐백으로 초빙하는 것이라 보았다. ‘정전(程傳)’은 육오(六五)가 언덕과 동산의 현자로부터 꾸밈을 받아 묊은 비단을 사용할 때처럼 잔잔히 마름질하고 베어서 나누면 비록 스스로 일할 수가 없어서 인색하기는 하지만 끝내는 길함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본의(本義)’는 근본을 돈독히 하고 실질을 숭상하며 검소한 상으로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62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峻) 장군<14>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중앙철학)

독립기념관의 시어록비 공원에는 장군의 어록비가 100번째로 건립되기도 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안동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권준 장군에 대하여 100만 안동 권씨는 공의 국가에 대한 숭고한 충성심과 가문에 대한 효심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안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 동상 건립비는 경상북도에서 계획 중이며 장소 모색 중, 충효의 고장이며 권준장군이 태사묘 중간에 크게 기여한 안동이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안동으로서도 빛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상 건립은 권문에서만 주관하지 않고 지역의 대성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백인 권준 장군의 동상건립 장소는 태사묘 부근인 응부(應府)공원이나 문화공원에 건립하여 안동 시민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충효사상을 널리 전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상이 그곳에 설립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안동의 문화 순례 코스 중에 고려(高麗)의 개국공신이신 삼태사묘와 함께 장군의 동상이 건립된 응부공원을 순례한다면 충효의 고장이 한층 빛나는 문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장군의 장손 권영철의 「나의 할아버님 회고담」(대구 50사단 “권준졸” 개관식·2013.6)에서 했던 회고담을 기억하면서)을 다음에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할아버님의 장손으로 1946년에 중경임시정부가 소재한 중국 중경에서 태어났다. 당시 할아버님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년도인 1944년부터 내무차장(차관)으로 활동하셨다고 한다. 또한 나

는 1948년에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였다고 한다. 귀국 후부터 장손인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님과 함께 할아버님의 군대 근무지를 따라 생활하였다. 내 윗대의 가족 분들이 생존해 계시면, 많은 내용의 회고담을 들을 수 있으련만, 지금은 다들 작고하셨기 때문에 할아버님과의 생활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같이한 장손일 나 밖에 가족 중에서 회고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내가 정확하게 할아버님과의 생활을 기억할 수 있었던 시기는 울산에서 초등 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시기부터이다. 왜냐하면, 7살짜리였던 어린 나에게는 초등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할아버님의 집안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한국의 군부대 창설 등으로 바쁘신 할아버님이 시간이 내시면, 새벽4시에 기상을 하셔서 새벽5시에 나를 깨우시고 그 당시에 내가 간신히 학교에서 깨우친 한글 국어책을 일일이 점검하셨고, 때때로 배웠던 국어 책을 외우게 하셨다. 졸리다 보니 당연히 다 외우질 못하게 되고, 그때마다 회초리로 종이를 맞았고 할아버님의 훈시가 뒤를 이었다.

하도 많이 들어서 60세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내용은 애국의 중요성과 이 애국을 하기위해서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 국어를 잘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아야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으며, 셋째는, 도덕을 잘 지켜야 훌륭하고 존경받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4)

논어 해설

■ 權 貞 澤 花山院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而)

제6장

공자가 말하였다. “뜻을 도[道]에 두고 덕[德]을 지키며 인[仁]에 의지하여 예[禮]에서 노닐리라.

【원문】

子曰 志於道하며 據於德하며 義於仁하며 遊於藝니라 [자왈 지어도하며 지어덕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니라]

【이해】

배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상의 조건이 열거 되었다. 최고의 진리에 뜻을 두고 덕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인자함을 베풀고 율례의 교양을 갖추도록 힘쓰라는 말이다.

제7장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가 속수부로부터 시작하여 그이상의 예를 행한 사람치고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원문】

子曰 自行束脩以上은 吾末嘗無焉焉이로다. [자왈 자행속수이상은 오미상무회언이로다.]

【이해】

수는 육포(肉脯), 속[束]은 열 개를 한 줄로 묶은 것. 고례(古禮)에는 서로 상면하려면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다. 국군(國君)은 옥[玉], 경(卿)은 염소, 대부(大夫)는 가리기, 사士[士]는 평, 일반 서인(庶人)는 오리. 공상[工商]은 닭을 준비 하였다. 속수(束脩)는 예물 중에 가장 낮은 것인데 성인의 도를 배우려고 찾아와 예물을 바친 사람이면 누구든 막론하고 가르침을 내리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이다.

제8장

공자가 말하였다. “알려고 답답해하지

않으면 지도 해주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서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 주어서 나머지 세 모퉁이를 깨우침이 없으면 되풀이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원문】

子曰 不憤이고는 不啓하며 不非고는 不發하되 舉一隅에 不以三隅이고는 則不復也니라. [자왈 불분이고는 불개하며 불비고는 불발하되 거隅위에 불이삼우반이고는 즉불부아니라.]

【이해】

공자는 모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참다운 가르침을 아낌없이 베풀었으나 충실히 교도할만한 자질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애써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제9장

공자가 상을 당한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할 적에는 배부르도록 먹는 일이 없었다. 공자는 그날에 [문상이나 제례를 위해] 곡을 하였으면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원문】

子食於有喪者之側에 未嘗飽也러시며 子於是日에 哭則不歌러시다. [자식어유상자지측에 미상포아러시며 자어시일에 곡즉불가러시다.]

【이해】

공자가 상사에 임하는 근진한 애도의 자세를 표현한 대목이다.

제10장

공자[孔子]가 안연에게 말하였다. “등용하면 나이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물러나서 재능을 숨긴다고 했는데 오직 너와 더불어 나만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자로가 물었다. “선생님이 삼군[三軍]을 지휘하신다면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습니까?”공자가 말하였다. 맨손으로 호랑이한테 달려들고 맨발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하



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어려운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원문】

子謂顏淵曰 用之則行하고 舍之則藏을 惟我與爾有是夫인저 子曰 子行三軍이면 則誰與시리이까 子曰 暴虎馮河하여 死以無悔者를 吾不與也니 必也臨事而懼하며 好謀而成者也니라. [자위안연왈 용지즉행하고 사지즉장을 유아어유시부인저 자로왈 자행삼군이면 즉수여시리이 까자왈 호포방하하여 사이무해자를 오물여야니 필야임사이구하며 호모이사자아니라.]

【이해】

만 이천 오백 명이 일군[一軍]이므로 삼군[三軍]이면 대국[大國]의 군대[軍隊]이다. 공자[孔子]가 안연을 거의 성자의 반열에 끌어올려 친찬하는 것을 본 자로[子路]가 공자한테 만약 삼군을 통솔할 상황이 된다면 필히 자기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아 스스로의 용맹을 자꾸만 질문에 힘보다는 제해가 더 우선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제11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재부[財富]를 추구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비록 채 축질을 하는 마부라도 내가 또한 하겠거니와 그러나 그것이 추구에서 안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린다.”

【원문】

子曰 富而可求也일진대 雖執鞭之士라도 吾亦謂之러니와 如不可求일진대 從吾所好하리라. [자왈 부이가구야일진대 수집편지사라도 오역위지러니와 여불가구일진대 종오소호하리라.]

【이해】

실령 크나큰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참된 군자는正道[正道]가 아니면 돌아보지 아니한다. 매사의 지향하는 목표가 의리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공색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다.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채 (본원 중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繼續 省心篇 下

●

性理書에云(성리서에 운) 接物之要(접물지요)는 己所不欲(기소불욕)을 勿施於人(물시어인)하고 行有不得(행유부득)이어든 反求諸己(반구제기)니라.

해설 :

[성리서]에 이르기를 “사물(事物)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고, 행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 원인을 구하라.”고 하였다.

참고:

接物(접물)⇒사물(事物)을 대하는 것, 接→접할 접, 要⇒중요로움 요, 己所不欲(기소불욕)⇒자기가 하기 싫은 것, 不得(부득)⇒얻지 못하는 것, 反求諸己(반구제기)⇒돌이켜보아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구하는 것, 諸→모든 제.

●

酒色財氣四毒蛇(주색재기사도장)에 多少賢愚在內(多少賢愚재내상)이라 若有世人(약유세인)이 跳得出(도득출)이면 便是神仙不死方(변시신선불사방)이니라

해설: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로 쌓은 담 안에 수많은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행랑에 들어 있다. 만약 그 누가 이곳을 뛰쳐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신선과 같이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니라.

참고:

담⇒담 도, 壻⇒담장 장, 廂⇒익랑 상, 袪체 상, 跳⇒뛰 도, 仙⇒신선 선.

立教篇(입교편)

◆人間(인간)으로써 지켜야 할 倫理道德(윤리도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三綱五倫(삼강오륜)의 基本精神(기본정신)이다. 政治(정치), 經濟(경제), 社會(사회), 文化等(문화등) 各方面(각방면)에 걸쳐서 基本的(기본적)인 倫理道德精神(윤리도덕정신)이 갖추어지지 않

●

는다면 우리의 社會(사회)는 너무나 疲弊(피폐)해질 것이다. 마음의 根本(근본)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다 潤澤(윤택)하고 便安(편안)하게 하는 지름길 이 되는 것이다.

●

子曰 立身有義而孝基本(입신유의이효기본)이요 喪祀有禮而哀本(상사유례이애위본)이요 戰陣有列而勇爲本(전진유열이용위본)이요 治政有理而農爲本(치정유리이농위본)이요 居國有道而嗣爲本(거국유도이사위본)이요 生財有時而力爲本(생재유시이력위본)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신(立身)함에는 의(義)가 있으니 효(孝)가 그 근본이요, 상사(喪事)에는 예(禮)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전진(戰陣)에는 질서가 있으니 용맹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

나리를 다스리는 데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데는 도(道)가 있으니 계승이 그 근본이 되며, 재물을 생산함에는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입신(立身)⇒몸을 세운다, 즉 사회에 출세한다, 喪→왕을 상, 祀→제사사, 哀→슬플 애, 戰陣(전진)⇒전쟁을 하기위해 진을 치는 것, 戰→싸움 전, 陣→진칠 진, 陳과 同자, 勇→날랄 용, 治政(치정)⇒나라를 다스리는 것, 理→다스릴 리, 以 이, 居國(거국)⇒나라에 사는 것, 또는 다스리는 것, 農→농사 농, 嗣→이을 사→계승한다는 뜻, 生財(생재)⇒재물을 생산하는 것, 역(力)→힘 역, 노력,

●

景行錄에云(경행록에 운) 爲政之要(위정지요)는 日公與清(일공여청)이요 成家之道(성가지도)는 日儉與勤(일검여근)이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정사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公正)함과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청렴(淸廉)함이요,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 즉, 근검 절약(勤儉節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

讀書(독서)는 起家之本(기가지본)이요 循理(순리)는 保家之本(보가지본)이요 勤儉(근검)은 治家之本(치가지본)이요 和順(화순)은 齊家之本(제가지본)이니라.

해설:

글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에 따름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낭비하지 안하는 것은 집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

孔子三誥圖에云(공자삼계도에 운) 一生之計(일생지계)는 在於幼(재어유)하고 一年之計(일년지계)는 在於春(재어춘)하고 一日之計(일일지계)는 在於寅(재어인)이니 幼而不學(유어불학)이면 老無所知(노무소지)요 春若不耕(춘약불경)이면 秋無所望(추무소망)이요 寅若不起(인약불기)면 日無所辦(일무소반)이니라.

해설:

공자의 삼계지도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나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인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의 할 일이 없느니라.”

참고:

政→정사 정, 勤→부지런할 근, 讀→읽을 독, 起→일어날 기, 循→따를 순, 齊→가리던할 제, 儉속할 제, 삼계(三計)⇒하루의 계획, 일년의 계획, 일생의 계획을 합하여 삼계라 한다. 圖→그림 도, 幼→어릴 유, 어린 시절, 寅→동방 인, 인시(寅時)즉 새벽, 耕→밭 갈 경, 秋→가을 추, 耨→갈을 약, 만약, 범어(梵語)에선 (야)로 밭을 함, 즉, 般若心經(반야심경), 소망(所望)⇒몹시 바라는 것, 辦→갖출 관, 힘든 일 관,